

ERS 2016 at London

울산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조교수 이태훈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유럽이었다. 특히, 유럽의 대표 도시 중 하나인 “런던” 방문이므로, 기대감/설레임과 함께 다른 문화/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드는 여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호텔 예약과 학회등록/프로그램 신청 등은 4-5개월 전에 해두었으나, 런던/영국에 대한 여행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와이프와 두 딸의 걱정을 뒤로 한 채, 2016.9.2 김해공항/인천공항을 통해 런던으로 출발했다.

우리병원 (울산대학병원)에서는 안종준 교수님과 나, 그리고 내과 4년차 전공의(정화식)까지 총 3명이 ERS 2016 at London에 참석하였다.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여정이어서....역시 비행시간은 지루했다. 프로그램을 노트북으로 보면서, 미리 신청해두었던 PG코스, 듣고 싶은 session들을 정하고, 둘러볼 관광명소 방문계획까지 대충 세우고, 한숨 자고 나니, 10시간여의 비행이 끝났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도착했다. 입국심사 후 지하철을 통해 호텔 (Canary Wharf 역, Britannia International Hotel)에 도착하니, 오후 8시정도가 되었다.

런던의 첫인상인 지하철 (런던사람들은 그들의 지하철을 공식적으로 “TUBE”라고 부른다)은 우리나라(서울지하철)보다 좁고, (약간) 지저분했다. 하지만, 동행한 한국인 어린이가 지하철 안에서 재채기를 하자, 옆에 있던 중년 백인 여자가 휴지를 건네주는 것을 보고, 영국인들의 젠틀함을 느낄 수 있었다.



<2016.9.3. 전공의 정화식과 함께, EXCEL LONDON for ERS 2016>

학회 첫날(9/3), 새벽2시에 잠에서 깨었다. 뜬눈으로 아침을 맞은 후, 아침 일찍 학회장으로 갔다. 학회장은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있는, EXCEL convention center였다. 첫날은 PG코스가 열렸다. 본격적인 학회는 둘째 날(9/4)부터였다. 나의 thematic poster session도 둘째 날 오후에 열렸다. 나의 포스터 제목

은 "The characteristics of work-related asthma(WRA) in a prospective asthma cohort of an industrial city in South Korea" 였다. Occupational asthma(OA)와 non-work-related asthma(NWRA)에 비해 work-exacerbated asthma(WEA)가 가지는 특징들을 알기 위해, 우리병원에서 2년여간 시행한 연구인데, WEA가 OA나 NWRA에 비해, 외래방문/OCS처방/중증천식이 유의하게 많음을 보여주었다. 놀랍고/반가운 것은 WRA환자 중 WEA환자들의 anxiety depression이 OA/NWRA보다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온 캐나다 연구자(J. Lipszyc)의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였다. 그와 함께 서로의 연구결과를 서툰 영어로 토론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주로 천식/COPD, 폐결절/기관지내시경 관련 session들에 참석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연구 중 하나는 스웨덴에서 온 노학자(老學者) Lennart Braback의 "Childhood asthma in relation to maternal and paternal preconceptual nicotine exposures"였다. Epidemiologic study였는데, maternal (non-paternal) grandmother's smoking이 grandchildren의 천식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과거 자신과 부인이 담배를 피운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딸에게 태어날 손주들의 천식발생이 걱정된다고 하였다 (구글링을 해보니, Lennart Braback은 유럽에서는 나름 저명한, occupational medicine 연구자였다).

이번 ERS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기쁜 일은 김태범 선생님(서울아산병원)의 lecture였다. 김선생님은 "Severe asthma in Asia: insight into phenotypes"란 주제로 열강을 하셨고, 천식 연구를 위한 국제 consortium을 강연 말미에 제안하셨는데, 정말 큰 박수를 받으셨다. 사실 구연/포스터가 아닌, lecture session에 아시아권 발표자는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 ERS에서 김선생님이 유일하였다.



<2016.9.6. 김태범 선생님, EXCEL LONDON for ERS 2016>

우리(김태범선생님, 이재천선생님(제주대병원), 나)는 그날 저녁 Piccadilly Circus에서 함께 맘마미아 뮤지컬을 감상한 후, PUB에서 김태범선생님의 성공적인 강연을 축하하였다.



<2016.9.6. 김태범/이재천 선생님과 함께, PUB in Piccadilly Circus>

학회는 9/7 오전에 끝났다. 정화식선생과 나는 에딘버러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1박2일을 보냈고, 에딘버러성/칼튼 힐/홀리루드 궁전 등지를 관광했다. 젊은 정화식 선생은 이것 저것 보면서 감흥에 젖는 것 같았는데, 나는 솔직히 걸어다니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ㅜㅜ). 역시, 여행도 한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